

<2015.09.25.>

北日報

2015년 09월 25일 금요일 022면 기획

사람·자연 함께하는 명품 생태 도시 건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갯벌등 천혜 자연자원
관리센터·체험장 조성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환경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생물권보전 사업의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 추진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생태도시를 조성, 명실상부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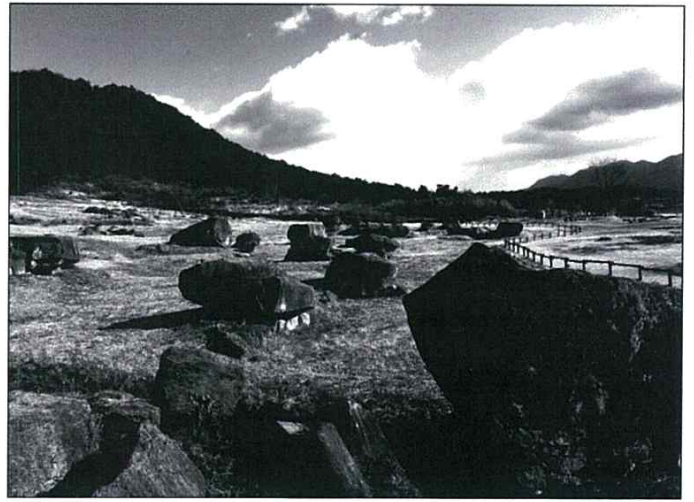
고창군은 지난 2013년 5월 28일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으로 등재되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부안갯벌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운곡람사르습지,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과 완충지역(핵심지역 주변의 하천 생태계, 산악·산림지대, 해안사구·염습지), 전이지역(기타 농경지와 14

개 읍·면 거주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핵심지역 중 고창·부안갯벌람사르습지는 필갯벌, 혼합갯벌,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분포하고, 안정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39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관리센터를 건립하며, 아산면 용계마을과 원평천을 2016년까지 7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관광지로 조성한다.

또한 2016년까지 총 192억원을 투자하여 운곡지구 생태습지복원사업과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생채숲길 등을 선보이는 생태체험지구를 조성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지 모습.

관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민간협업체인 새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를 통한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하고, 다류제작·홍보물 설치·국내외 네트워크 회의 참석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해리면과 심원면 일원에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를 오는 2016년까지 조성하며,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 향상 등

을 위한 학생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의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는 행정구역 전체가 지정된 국내 최초의 사례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생태도시 건설은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그랬듯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성규 기자

사람·자연 함께하는 명품 생태 도시 건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지 모습.

갯벌등 천혜 자연자원 관리센터·체험장 조성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환경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생물권보전 사업의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 추진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생태도시를 조성, 명실상부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창군은 지난 2013년 5월 28일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으로 등재되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부안갯벌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운곡람사르습지,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과 완충지역(핵심지역 주변의 하천 생태계, 산악·산림지대, 해안사구·염습지), 전이지역(기타 농경지와 14

개 읍·면 거주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핵심지역 중 고창·부안갯벌람사르습지는 필갯벌, 혼합갯벌,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분포하고, 안정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39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관리센터를 건립하며, 아산면 용계마을과 원평천을 2016년까지 7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관광지로 조성한다.

또한 2016년까지 총 192억원을 투자하여 운곡지구 생태습지복원사업과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생채숲길 등을 선보이는 생태체험지구를 조성한다.

관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민간협업체인 새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를 통한 환경 보전활동을 전개하고, 다큐제작·홍보물 설치·국내외 네트워크 회의 참석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해리면과 심원면 일원에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를 오는 2016년까지 조성하며,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 향상 등을 위한 학생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의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는 행정구역 전체가 지정된 국내 최초의 사례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생태도시 건설은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그랬듯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성규 기자